

# 아동 그림책 명문 '마루벌'

아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정도 출판' 고집...번역서보다 창작동화 주력할 예정

국내 아동출판계가 활기를 띠는 이유는 상당 부분 학습출판물 수요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 출간만으로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마루벌이 펴낸 그림책은 돋보인다. 대형 출판사의 아동출간팀 또는 계열 브랜드의 그림책이 범람하는 가운데 매달 충실한 분량으로 어린이 독자를 만나는 <마루벌의 새로운 동화> <마루벌 0100 갤러리> 등의 그림책들은 독특한 그림과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 권의 책이 세상 빛을 보기란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마루벌은 특히 출간 도서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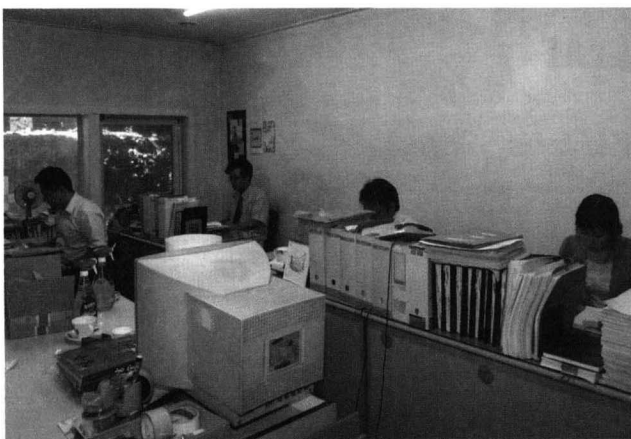
1990년 7월에 출판등록을 했으니 마루벌의 역사는 올해로 16년. 국내 그림책 시장이 움트기 시작할 무렵부터다. 전공이나 사회경력과는 무관하게 출판을 시작했다는 신태식 대표는 아동 도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림책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국내 아동물은 외국도서에 비해 수준이 많이 낮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뛰어 들었죠.”

한 권의 책이 세상 빛을 보기란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마루벌은 특히 출간 도서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한 편이다. 시간과 노력, 정성을 쏟은 2년이 훌쩍 지나고 1992년 드디어 첫 책이 나왔다. 프랑스 바이아르 출판사의 아동 월간지를 단행본으로 기획, 번역한 《아름다운 이야기》시리즈였다. 출판 경험은 없어도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 온 덕분에 적극적으로 출간을 추진했다.

“첫 책으로 10권이 함께 나왔습니다. 잡지에 실린 동화를 선별해서 단행본으로 엮어 펴냈는데 10여 년간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판권문제로 절판됐습니다.”

절판 이유는 프랑스 출판사가 국내 타 출판사와 ‘전집 도서’로 계약 하면서 단행본 판권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편집부와 마케팅부 총 12명의 식구들이 꿈을 심는 그림책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마루벌 신태식 사장

처녀작 《아름다운 이야기》, 10여 년 장수 인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소프트 커버와 독특한 그림, 편집으로 어린이 책 전문가들에게 마루벌이라는 신생 그림책 출판사를 알린 소중한 책이다. 당시만 해도 외서를 국내에서 번역 출간할 때 정상적인 판권 계약을 맺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유사한 도서 번역물이 넘쳐날 때였다. 대형 출판사들조차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번역서를 출간하던 때부터 마루벌은 철저한 판권계약 후 책을 펴냈다.

이에 대해 신대표는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아동출판계 발전상을 보고 겪으면서 한 단계씩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됐다.

“몇 년 만에 100종 씩 펴내는 타 출판사와 비교할 때 크게 성공하지 못한 편이죠. 돈 버는 일을 하려고 했으면 사정은 달라졌겠지만 이제는 마루벌의 책을 좋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생겨 기쁩니다.”

최근 국내 아동출판물 시장은 포화상태다. 다양한 형식의 학습 도서와 그림책이 나오고, 이 중에도 잘 팔리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으로 양분되지만, 마루벌의 책은 대개 상업성과는 거리를 두고 나름의 행보를 구축해 왔다. 시장 흐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업적 요소가 충분하더라도 출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두 번 고민하지 않는다. '유행을 타는 책, 남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을 기피하는 이유는 마루벌만의 출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가, 돈이 되는가는 그다음 문제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기에 마루벌 그림책의 가치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외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띄고 있다.

"우리 그림책 몇 권이 해외 판권 수출계약 진행 중입니다. 모두 한국에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던 책인데(웃음) 외국에서 가치를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게 기쁘네요. 돈으로 얻는 것 보다 더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유행 타는 책, 남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 기피

사실 번역서로 시장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에 마루벌의 창작동화를 낮설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창작집으로 정지용 씨의 《여러 나라 이야기》를 선보였을 때 비로소 '번역서만 출간하는 출판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계약을 안 하고 미뤘던 책들이 타 출판사를 통해 국내에 거의 소개됐습니다. 번역서 중 계약할 책이 '전무' 하다고 말할 수 있을

독창성, 실험성을 추구하는 마루벌의 그림책들. 지난 16년간 14개의 시리즈를 포함, 총 175종의 책을 출간했다. 더 가깝게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기획의 주안점이다.



정도예요. 이제는 국내 창작동화에 더 큰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신대표는 국내 작가 발굴 노력과 함께 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구상중에 있다. 최근엔 ‘북아트 강좌’를 개설해 회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출간도서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참여 독자들의 호응이 지속 여부의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그동안 주부를 대상으로 한 ‘책 읽기 아카데미’와 ‘책 만들기’ 강좌를 연 경험이 있다. 책 만드는 일이 벽차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고 한다.

“좋은 책을 고르는 법을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학부모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만들어 놓은 목록에 의존하기

보다는 엄마가 직접 골라줄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고 획기적인 변화 보다는 늘 그래왔듯이 ‘그림책 전문 출판사’로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갈 생각이다. 대중적·오락적이지 않은 책, ‘세상의 으뜸’을 뜻하는 마루벌이라는 이름처럼 확고한 출판 신념으로 자신만의 그림책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

취재\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 INTERVIEW

### 이명희 이사

## 국내 그림책 ‘새로운 상상력, 독자 욕구 충족시킬 지적 재미’ 필요



창립 초부터 마루벌 그림책 개성 확립에 공헌한 이명희 이사는 국내 아동 출판물 발전과 경향에 대해 긍정적이다.

“국내 그림책이 지난 몇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이제는 해외 도서와 비교할 때 편집과 디자인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국내 아동출판사들이 기울인 노력 덕분입니다.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면 철학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벌 그림책들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간중인 시리즈 가운데 《100 갤러리》의 기획컨셉은 이명희 이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0세부터 100세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의미하는 갤러리 시리즈는 그림책이 어린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요즘 그림책은 연령을 의식하지 않고 출간되는 실정이에요. ‘어린이용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좋은 책들이죠. 그림책은 이제 하나의 편집 출판 장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이사는 하반기를 겨냥한 새로운 시리즈 출간을 앞두고 독자 연령층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많은 그림책 출판사 중에서도 나름의 위치와 개성을 이룩한 마루벌의 잠재력을 키워 생태학적 소양과 가치관을 갖게 하는 우리문화 그림책, 생태 그림책, 그림책 보는 나이를 조금 넘어선 연령대를 위해 만든 판타지 동화, 순수 국내 창작 팝업 북 등이 그 일환이다.

이 이사는 미국 아동출판계와 비교해 국내 현실을 전망했다. “수차례 접촉한 미국 편집자들은 아무도 우리처럼 공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진 모델로 삼는 이유는 ‘출판 시스템’에 있다”는게 그의 견해다.

“그들에게 아동출판 전성기는 1960년대예요. 어릴 적부터 좋은 책을 접하고 자라온 세대들이 현재 몸에 밴 습관대로 책을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그 시간의 격차를 ‘노력’으로 매우고 있습니다.”

마루벌 역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새로운 상상력,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지적재미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아직 국내 그림책에는 독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상쾌한 결말이 없습니다. 뻔한 결말로 시시하게 끝나는 책은 오래 남지 못하겠죠. 예술이라는 것은 깨어져 새롭게 탄생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마루벌의 글이 그런 부족함을 매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마루벌이 좀 더 보강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자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포기했던 수많은 책들이 이제는 국내 독자들에게도 부담 없이 읽히는 것을 보면서 책 자체의 수준 뿐 아니라 출판 외적인 요소(타이밍, 시장상황)를 파악하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도 일고 있다. 어린이책 편집자와 경영자들의 교류도 한층 활성화할 계획이다. **▶**

취재\_송보경 기자